# 야곱 허물, 이스라엘 허물

## (창35:1~15)

9.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10.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마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11.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12.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3.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벧엘이라 불렀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야곱 허물, 이스라엘 허물>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야곱 허물, 이스라엘 허물'
야곱이라는 이름도 허물이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허물이라는 뜻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허물하면 잘못해서 벌어진 실수와 흉이 허물입니다.
또 잘 아시는 대로 뱀이 허물을 벗고, 곤충인 매미나 메뚜기 같은 것들이 허물을 벗는데, 이때에 껍질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된 허물로서 야곱이라는 이름도 허물인데 흉이면서 그것은 벗어버려야 하는 껍질이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흉이면서 동시에 벗어버려야 하는 껍질이라는 얘깁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에서 사도행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때의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야곱에게 주어지게 된 맥락 안에서 그 의미를 생각하며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신약에서의 많은 경우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선민을 가리키는 단어로 쓰입니다.
마치 '조미료는 미원이에요. 맛을 내는 미원이에요.' 라는 광고가 있었는데, 미원 하나만 있을 때는 미원이라는 말과 조미료라는 말을 같은 말로 여겼던 적도 있습니다. 미원이라는 것은 조

미료의 여러 가지 다양한 브랜드나 이름의 한 가지일 뿐인데, 미원만 있을 때에 조미료는 미원이라고 하면서 미원=조미료가 되었던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선민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선민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선민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쓰일 때는 오늘 제목이 뜻하는 바가 다르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생긴 맥락에 들어가서 그 의미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흉이고 벗어야 될 허물인 껍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껍질로써 벗어야 될 허물은 뭘 뜻합니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매미와 같은 곤충들, 뱀이나 도마뱀 같은 파충류들이 허물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뜻해요. 누에도 허물을 벗고 나비가 되는 것처럼 허물을 벗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야곱도 허물이고 이스라엘도 허물이고 선민 이스라엘도 그 이름의 의미를 벗어버려야 되는 것은, 선민이 선택받았을 당시에 선민답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선택받아서 이제 선민다운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선민다움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중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고향을 떠난다고요?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떠나는데,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떠난다는 것이 뭐라고요?
이 땅에 내 마음에 관심의 대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대해서 첫 번째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이 영광의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바로 이 상태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선민다운 상태입니다.
선민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마음에서 일등하고 계신 상태.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나 집안의 일이 관심의 대상에서 하나님보다 등수가 밀려 나갑니다. 내 건강문제가 있습니다. 건강문제가 하나님보다 관심의 대상에서 이등, 삼등으로 밀려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일등이십니다. 이게 바로 선민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민다운 모습이 되는 것은 두 번에 걸친 허물벗기의 과정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야곱이라는 허물을 벗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라는 허물을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세겜에서 피바람이 불고 나서, 야곱이 도저히 세겜에서 살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축복 주도권을 쥔 상태에서 축복 주도권 행사에 결정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곳곳에서 평강을 깨버리는 시한폭탄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속수무책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벧엘로 가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 보면 야곱이 벧엘을 회상하고 있어요.
“내가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밧단아람으로 도망할 때에 나타나셔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만났던 장소인 벧엘로 우리가 올라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식솔들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잖아요. 가정수호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종류의 모든 우상들, 많은 식솔들이 생기고 노비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있었을 것이고 라헬의 드라빔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벧엘로 올라가게 됩니다.
벧엘로 올라갔을 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마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렇게 보니까 자꾸 의문이 생깁니다.
이제까지 말씀을 진행해 오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생기게 된 사건이 얍복 강가의 씨름이었는데 하나님을 이겼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이 어떤 식으로든 용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자식과의 싸움에서 아버지가 사랑으로 일부러 져주는 싸움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이건 참으로 낭만적이고 소박한 얘기이지 우리 신앙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규정하시고 한계 지으시고 모범을 보이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 속에서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이겨 보신 적이 없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모든 말씀과 행동은 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마음을 쥐시고 행하신 것이었고 하나님의 주도권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지 주님의 주도권인 아들의 주도권으로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셨기에 주님의 주도권은 나타났어도 아버지와 일치했겠습니다마는 당신의 신성을 완전히 부정하시고 아버지의 신성만 나타나도록 아버지께 철저하게, 털끝만큼의 예외 없이 지신 분이 주님이셨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을 이긴 것이 정당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문 10절에서처럼 하나님이 먼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이긴 것이 잘못됐는데도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의미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패배하셨다는 의미도 들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당신이 패배하셨을 때 주어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자꾸 야곱에게 강조하시고 주지시키시고 반복해서 기억하게 하십니다. 야곱이 자신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야곱에게 자꾸 이스라엘이라고 주지를 시키시고 9절에서는 복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이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의미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게 신약에 가서 사도바울이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우리가 움켜잡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구약에서의 축복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 세상적인 축복을 다 담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부자 되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자손 많이 낳고, 머리되고 꼬리 되지 않는 것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자마자 주님께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복음이 복이라는 소리인데) 팔복을 말씀하실 때 보면 완전히 복의 개념이 바뀌어 버리는데, 이것도 왜 그런가가 야곱과 이스라엘의 이름의 의미를 알 때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이름이 바뀌는 과정이 성경 구약전체와 신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름의 의미를 한 번 따져 봅니다.
야곱이 지금 벧엘로 올라갑니다. 야곱이 벧엘에서 두 번 하나님을 만났는데 야곱 때 한 번 만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만납니다.
그러면 야곱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뭘까요?
야곱의 의미는 '발뒤꿈치를 붙잡는 자, 선수 치는 자, 교활한 자, 속여서 빼앗는 자, 속이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은 어떠한 상태의 인격을 대표하는 이름인가?
아담 타락이후 모든 인간의 타락한 인격을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타락한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특성이 선악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합니다.
선악 판단의 결과가 좋은 것, 갖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복인데 오복이에요.
부귀영화, 장수, 자손을 많이 낳는 것, 관직이 높아지는 것, 존경받는 것이 오복 안에 다 포함돼 있는 게 아닙니까?
타락의 결과 인간 스스로가 내게 있으면 좋겠다고 호불호를 판단해서 결정한 것이 바로 오복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인간의 삶은 이 복을 추구하는 삶이 돼 버렸는데, 그게 바로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장자권을 탈취한 중요한 요인도 결정적으로 오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오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수고합니다. 노력합니다. 자기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결

정적인 오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원된 것이 인류역사 이래 계속되고 있는 게 종교입니다. 종교의 신을 만들어 내고 종교의 우상을 만들어 냅니다.

어떤 사람은 불상을 통해서 복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힌두교의 소를 숭배하면서 복을 추구하고, 태국에서는 불상 앞에 금가루를 바치면서 복을 추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화수 떠놓고 고목나무에 빌면서 복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무당 불러 굿을 하면서 복을 추구하고 이게 바로 모든 인간의 공통점인데 다른 것은 수단에서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복을 추구할 수 있는가는 수단에서 다르고 복을 획득한 사람이 책을 쓰면 그 책이 또 수단과 길이 돼서 그것을 답습하고 몸에 익혀서 똑같은 복의 자리에 서려고 애를 쓰는 것이 인간의 삶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인간 삶의 모습을 간단하고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야곱입니다.
장자권을 탈취했을 때는 야곱의 마음은 복에 대한 전망이 너무 밝았습니다. 앞으로 갖게 될 복이 훤하게 보였습니다. 장자권의 복의 내용을 아니까.
이렇게 추구하다가 장자권을 탈취했는데 그만 도망가게 되고 복이 어둠에 묻혀 버리게 되고 복을 얻게 될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복에 대해서 마음이 깜깜해 질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조명이 비추려면 다른 것에 대한 조명이 꺼져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하십니다.
“네가 가는 길을 지켜줄 것이고 무사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축복의 약속을 다 주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때 야곱이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장자권을 탈취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복을 얻으려고 하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얻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지는 과정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는데 죽어도 놓지 않잖아요. 환도 뼈가 탈골이 되는데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지시는데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신앙은 축복의 성취 가능성인 이삭을 바쳐버리고 하나님 경외와 사랑을 표현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야곱은 환도 뼈가 탈골되면서 까지도 놓지 않은 축복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이 허물과 흉에서부터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나왔는데, 왜 하나님은 당신이 축복 주도권을 쥘 수 없었던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반복하시면서 복을 주시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의미에 관심을 가지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은 첫 번째 씨름을 통해서 얻게 되는 첫 번째 목적을 이루지 못하시고 차선적 목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차선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그 의미는?
환도 뼈가 탈골되도록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축복 주도권을 쥐고 있는 모습인데 축복 주도권을 쥔 자로써 축복 얻는 수단을 무엇으로 삼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것은 잘못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축복 주도권을 쥐고 불상 앞에서 절을 할 때, 다른 사람이 축복 주도권을 쥐고 정화수 떠놓고 복을 빌 때, 다른 사람이 축복 주도권을 쥐고 무당 불러 굿을 할 때, 다른 사람이 축복 주도권을 쥐고 자기개발 서를 읽고 노력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야곱은 내 축복 주도권을 행사해서 올바르게 목적하는 것의 복을 쟁취하려면 여호와 하나님 외엔 방법이 없다고 확정한 싸움이 바로 이 얍복 강에서의 싸움이었습니다.
축복 주도권을 놓지 않은 것은 허물이지만, 모든 인간이 축복 주도권을 다 쥐고 있을 때, 그나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단계까지 끌고 가기 위한 전 단계로 하나님께서 얻으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축복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야곱의 생각이 다른 모든 사람과 구분되는 선민의 일시적 특징이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산에서 서울 까지 경부선을 타고 오는 길에 부산에서 출발해서 대구 이전 까지는 야곱의 기간이라고 하면, 대구에서 대전까지는 이스라엘의 기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대전부터 경기도를 지나 서울까지는 아브라함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야곱은 허물이고 흉인 것이고, 벗어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똑같은 허물이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이라는 허물에 비해서 발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라헬의 훔친 드라빔이 어떻게 알려졌을까요? 20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도망 나와서 숙곳 지나 세겜 지나 벧엘까지 오는데 10년이나 걸렸는데, 10년 동안이나 라헬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야곱이 몰랐을 리는 없지요. 허용한 이유는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복을 얻으면 좋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얍복 강가에서의 씨름은 개인에게 확정합니다.
축복 주도권을 쥔 것은 결정적으로 문제입니다. 언젠가는 축복 주도권을 놓아야만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축복 주도권을 쥐고 어떤 사람은 불상 찾아가고, 어떤 사람은 드라빔 찾아가고, 어떤 사람은 상수리나무 밑에서 절하고 있는데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축복 주도권이 있음을 알고 기도하고 의뢰해야 한다는 마음을 확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도 집안의 드라빔이나 우상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얍복 강가에서의 씨름은 자신에게만 확정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다시 한 번 세겜에서 피바람이 몰아치는 평강이 깨지는 사건을 경험하고, 벧엘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야 집안의 모든 우상들을 다 땅에 묻어버리고 자기 가족들에게도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벧엘에서 다시 한 번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이 축복 주도형 인간으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얻기 위해 가지가지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는 중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과정을 통해서 선민의 선민답게 되기 위한 전 단계로써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통해서 복을 얻겠다는 것을 확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확정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 세상의 오복을 이루려면 나를 통해서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을 지켜라.'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므로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가 복 주도적인 인간이 된 것 자체가, 복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자체가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이 단계를 넘어서 자기가 복 주도권을 쥐지 않기 위해 이삭조차도 바쳐버리는 단계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축복개념이 세상의 오복개념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가는 이유가, 선민다운 아브라함의 전 단계로서의 이스라엘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율법을 준 것이에요.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 진다면 복을 주겠다고 해 놓으시고 의롭게 되지 못함을 깨닫게 하시므로 죄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왜? 아직 야곱의 마음속에서는 죄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아도 하나님께 뇌물을 드리고 선물을 드리는 제단이지 아브라함처럼 죽는 제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알아야 예수님의 십자가사건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까?

죄가 뭡니까?

내가 축복을 주도하려하고, 축복을 소원하고, 축복을 계획하고, 이것이 내게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아야 십자가를 쥐고 자꾸 축복 주도적 성향이 나타나는 것을 죽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 당신께서 지으신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야곱에게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벧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야곱일 때 일반인처럼 축복 주도권을 쥐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복을 얻으려고 생각했을 때 복의 전망이 완전히 사라져서 깜깜한 암흑 속에 묻혔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야곱은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 에서로부터 도망갈 때에 하나님을 만난 벧엘에서는 뭘 생각하지 못했느냐?
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내가 모셔 들여야 하는 복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또 보게 된 것입니다. 세겜에서의 피바람 때문에 두 번째 벧엘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세겜에서의 피바람 때문에 세상 복에 대한 전망이 흐려지니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 세상적인 복이 눈에 보이지 않고 세상적인 복에 대한 전망이 흐려져야 하나님이 보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야곱과 이스라엘을 거쳐서 아브라함의 단계에 까지 도달하는 과정을 축소시키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계속 벧엘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밧단아람에서 라반 외삼촌으로부터 헤어져서 숙곳과 세겜을 지나면서 다시 벧엘로 온 게 10년 만입니다.
그 옛날 야곱시절에 에서를 피해 도망할 때에 벧엘에서 분명히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린 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겠다고 서약을 했었습니다.
10년 세월이 없었어도 될 기간을 끼워 넣는 바람에(자기가 축복 주도권을 가지고 살았으므로) 그렇게 풍파가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10년을 빼버리고 곧바로 벧엘로 돌아왔으면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벧엘의 의미는?
장소적인 의미보다는, 이 세상의 축복에 대해서 축복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바로 벧엘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어서 이 땅에서의 축복인 오복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깜깜해질 때, 그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조명이 비춰지고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요?

내 마음은 장소의 벧엘이 아니라, 상황적 의미적 벧엘로 돌아가면 됩니다.
숙곳과 세겜을 거친 벧엘로 돌아오게 되는 10년 과정, 피바람이 불게 하는 과정 없이 하나님을 복으로 갖게 되고 이 세상은 하나님 축복 주도권에 의해서 움직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못 견디는 것입니다.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의 단계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껍질을 벗지 못한 상태를 고집하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장정 전부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광야에서 죽어버립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발전한 것은 좋은 것입니다만, 이스라엘이란 이름 안에 묶여 있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선민인 유대인들이.
선민답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번의 허물을 벗어야 합니다.
야곱의 허물을 벗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도할 때 일어나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해서 교회에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 열심히 믿어서 복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단계를 벗어나서, 복은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버리는 이스라엘의 허물을 벗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마다 그 복을 마음에서 뿌리치면서 복에 대한 나의 시력을 제로상태로 놓으면서 계속 벧엘로 회개해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삶의 여정이 지속돼야 되는데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허물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원죄가 우리의 인격 속에 뿌리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야곱적 성향과 이스라엘적 성향이 나타납니다.

야곱적 성향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책을 읽고 성공했다면 그 책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 종교의 다원화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적 성향은?
하나님만이 축복의 유일한 길이라고 붙잡습니다.

이 두 가지 형태가 계속 나타나는데 어떻게 내 인격적 기본 본성을 죽이고 벧엘로 돌아갑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의 복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주어진 복에 대해서 죽고 주실 복에 대해서도 죽는 것입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세상 복에 대한 전망을 깜깜한 어둠 속에 묻어버리고 하나님 보는 맛으로 이 세상의 시간들을 채워 나가시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축복 주도권에 의해서 끌려져 갈 것입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벗어야 될 허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야곱의 껍질 안에 갇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껍질 안에 갇혀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늘 벧엘에 머물게 하셔서 세상 복에 대한 전망이 어둠 속에 묻혀버리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게 해주시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축복 주도권이 쥐어지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